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제574호 1992년 3월 17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153호

|     |                             |
|-----|-----------------------------|
| 발행인 | 이강희                         |
| 편집인 | 이장수                         |
| 집행인 | 강인                          |
| 주최  | 외대신문사 (☎962-7128, 361-4151) |
|     | 외대학보 (☎962-7048, 361-4152)  |
|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
|     |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란면 학산리 489 |
| 인쇄인 | 김영수                         |

## 재단, 학생측에게 재단수익 공개하기로

학생측,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 납부할 것을 결의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올바른 논의구조 마련이 시급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학생측의 4.86% 인상률 책정과 대학국의 18.18% 인상률 차이가 좁아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학국은 조기 조정된 2차등록기간을 강행한 방편이어서 이에 맞선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생회 계좌 등록금 납부가 결의되는등 이번주부터는 등록금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화) 오전 11시 국민식당에서 개최된 예정이었던 '1차 등록금 대책회의'가 내정된 대학국 대표 5인중 2명만이 참석함으로써 사실상 아무런 논의를 갖지 못했다. 이에 학생측은 1차협의의 결의안을 전적으로 대학국의 분상실한 태도에 대해 비탄을 금치 못하며 11일(수) 서울캠퍼스 1백여명의 학생들이 학생회장실과 학생회 회의실 집기를 학생회 앞으로 들어내는 등 강경 행위를 나타냈다.

이후 학생측은 '2차 등록금 대책회의'를 13일(금) 오전 11시로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대학국에게 공문을 띄우고 ▲등록금 조정위원의 위상 정립 ▲92년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학생측 입장 논의 ▲2차 등록기간 연장 등에 대해 대학국이 학생측과 논의를 재개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13일(금) 열린 '2차 등록금 대책회의'는 학생측이 공문을 통해 전달한 오전 11시 회의 제기가 대학국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결렬했으나 오후 3시 대학국 대표가 참석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학생측과 대학국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학국의 '추가등록기간은 16일(월)에서 25일(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등록금 문제보다 학원 민주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담판만을 듣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렇듯 대학국과 학생측의 논의 진전은 등록금 대책회의는 이제(16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대학국의 분상실한 태도로 등록금 대책회의가 결렬되자 학생회장실과 회의실의 집기를 들어내어 길걸 행하였다.

못하고 등록금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여러가지 학원 민주화 문제와 함께 극한 상황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이미 9일(월)부터 학과와 비상총회 및 학내총회를 시작으로 학생측이 제시한 4.86% 인상안이 관철되고 재단의 집결지인 학생회 건물에 대한 수업거부 등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나갔다. 특히 총학생회에서 '등록금'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매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재단의 선전효과를 가졌다. 또한 12일(목)에는 '재단전임금 확충과 충실성취를 위한 7천하루 힘다지기 대회'에 5백여명이 참가하여 대학국의 논의 회의를 규탄했으며, 15일(일)에는 비상학내총회와 학원민주화 2차 등록금 문제 불가 입장에 맞서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납부를 결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16일(월) 학생측은 대학국이 3차 대책회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회 집결지를 들어내며 이어 재무처 청장실과 재무처 경리과를 폐쇄했다. 이후 양캠퍼스 학생대표 4인은 이미 내정된 3차 회의에서 예정 산자문위원장대신 참가한 이양희재단 사무과장을 통해 ▲재단비밀금 수억급의 구체적 내역근거 ▲12억 재단전임금 책정 근거 ▲세과등 토지의 명확한 주소 등을 오는(17일) 오후 3시까지 받겠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용인캠퍼스도 9일(월)부터 학과총회를 시작하여 11일(수)까지 거의 모든 학과가 총회를 끝낸 가운데 1-2차 등록금 대책회의의 결렬에 따라 11일(수) 오후 9시에 비상학내총회를 소집, 추가등록기간의 연기가 무산될 경우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독언어과 파외파 우정명군이 단적으로 들어갔으며 16일(월)부터는 서양학과, 동양학과 파외파들이 이에 동참하여 오늘까지 단식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등록금 학생회납부결의 및 동부승리와 총선 승리를 위한 애국의대대학위원회' 집회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없는 등록금 인상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전임금 1억원 확충에 기울

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제(16일)부터 시작된 다 단과대학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측은 대학국이 계속해서 학생측과의 논의를 회피할 시 학내행정기관을 하나로 결속해 나갈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어제(16일)는 서양학과와 자연과학대학이 총회를 마치고 학내전전권을 가진후 총동시에 "교통문제 해결

이 등록금만을 올리는 대학국은 즉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며 강경 행위를 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13일(금) 대학국에 '용인캠퍼스 교통-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띄우고 오는 학생회관 앞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국은 '서면으로 응답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신건수(서학·세종대)군은 "공청회마저도 회피하는 대학국의 태도는 학생과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라며 "19일(목) 열린 전체 학생총회를 통해 이러한 대학국의 처사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20일(금)부터는 본격적인 불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차회의에서의 재단측의 돌변한 입장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18일(수)에는 용인캠퍼스에서 오는 재단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부총장실에서 4차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렇듯 예년과는 달리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 투쟁은 이제 대학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학생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상률을 낮출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학생측 요구안과 대학국이 집행하고 있는 액수가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게 합의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이와 함께 대학국이 등록금 협상대는 학원 민주화 사업들을 문서화하여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무라 책을 써왔으나 올해 등록금 협상이 제기되면서 대학국이 학생측과 문서화한 사업초저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생측은 확실한 보장이 없는한 심사의 대학국과 타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환 기자)



### 권총에 가로막힌 열린공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것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이며, 또한 정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전달이기 때문이다. 선거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고 역사가 뒤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선거철만되면 각 후보들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국민들을 많이 부르기도 찾아다니고, 허리가 휜 정도로 인사하기에 바쁘다. 또한 국민들은 오랫동안 주인대접(?)을 받는데 갑자기 초췌해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을 졸이지 않고서도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정치인들을 꾸짖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선거철만 되면 온 나라가 유세장이고, 정치토론회장이 되는데,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쌓인 애가들이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열린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열린 공간을 봉쇄하려고 한다. 그것도 '민중의 지평'이라는 경찰들이 앞장서서 그 공간으로 가는 길을 관통으로 가로 막고 있다.

얼마전 성남에서 용인캠퍼스 소속 학생들이 '민주후보'를 지지하자는 유인물을 뿌리는 이유만으로 15명을 불법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행당시 경찰들은 권총으로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한다.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인가? 나름대로 그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행위마저 탄압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오히려 밤을 무기로 공공연하게 공간언론을 조작하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속셈인 것이다.

▲독재이 제발이라는 것일까.

한 정권이 재빨리 들어대며 공간언론을 연쇄하려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3당합당 이후 저속은 몰가하며,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폐쇄, 늘어나는 실업자등등 이것 하나 내세울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감내하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국회의 결단'이 '구결의 결단'으로 전락할 판이니 그 답답한 심정이 어둡겠는가.

▲독재는 끝이 없다.

아무리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정치적 자유를 압살하려 해도 생명만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 생명이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했을때 그것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무리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치면전수록 단단해지는 경찰의 위력은 이번에는 꼭 보여줘야 한다.

(박 현 숙)

### 지 면 안 내

3면: 양캠퍼 총학, 총선 참여 적극 선동

4면: 탈냉전에서 평화공존으로 가는 남북관계

5면: 이승만 독재와 3·15부정선거

6면: 민주당, 총선에 사활건다

7면: '제미'에 가리워진 정치적 '술수'

8면: 외대인의 등투 참여도 조사

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마감 박두·외대학보 수습기자 원서마감 박두·외대학보 수습기자

자! 이제 비상학생총회로  
우리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외대가 나아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대의 발전!  
자! 이제 7천 학우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일시: 1992년 3월 17일 (화) 오후 2시
- 장소: 노천극장

혁신과 도약의 큰걸음  
제 / 26 / 대 승 / 리 / 하 / 는 총 / 학 / 생 / 회





## 글심는 차례



# 민자당 총선에 사활건다

## 통·반장 조직까지 동원해 민자당 후보측에 행정편의 제공 민자당, 총선에서 승리할경우 내각제개헌 확실시돼

### '고전'이 된 금권공세와 관권개입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이후 정국 전개에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민자당은 전국 237개 선거구 전역에 걸쳐 후보자를 내고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득표권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동원하는 방법에는 금권, 관권, 실권 없는 공약, 지역 분석력 등이 망라되어 있다.

첫째, 여당 선거운동의 고전이다시피한 금권공세는 그 양적 측면에서 훨씬 대우화되어 있다. 지난 정국의원선거 때 대구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자당의 경우 당원가입 사례비 2만원, 유세장 동원비 1~2만원, 사조계동원 활동비 일당 5만원, 언론간담회 식비 1인당 5만원, 공회 사례비 5억원, 직접 금품살포 1가구당 3만원 등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민자당후보의 선거자금은 7억~8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법정선거비용인 3천2백만원에서 5천1백만원보다 20배가 넘는 액수인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선거보다 5배 가량 많은 자금이 동원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자당후보의 금권공세는 사상 유례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당후보까지 가세되어 총선 이후의 경제후유증을 심각하게 예측된다.

둘째, 여당 선거운동의 도화나 상부구 수법인 관권개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자당은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자 치단체장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던 것이다.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안기부는 이번 총선정계에 전면적인 공천을 위한 개혁심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 공천을 위한 개혁심사 작업, 재보궐선거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각, 의회인사 영입 등에 사바라 민자당후보의 당선에 위협이 되는 여권 무소속후보에 대한 시비발발에 이르기까지 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다.

상대후보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벌이는 것은 국책성의 역할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당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현대그룹

에 대한 주식매각자금 용도 추적, 은행지불보증 철회 등 공황무전 활용하고 있다. 각 지역구 차원에서 내부 부 감독 하에 각 시·도·구·군·시·읍·면 단위로 민자당후보측에 각종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편의기관에서도 직접 민자당 선거운동원으로 뛰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관련단체가 민자당후보를 돕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단체로는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

당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한 지배세력의 선거작전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바이사적인 김장삼하마이 불고, 강원도에서는 국민당으로 인하여 지역감정바람에 휩싸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배세력이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이유는 지역감정이 김대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김대중당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도를 감축시킨다는 것인

역시 공약(空約)에 불과할 따름이다.

### 결사적인 상대에게 결사적인 대응을!

이번 총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범민주세력이 반민주세력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더더구나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



민자당은 14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당원회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는 동정협의회, 체육회, 새마을추진위원회 등 10개가 넘는다. 이들 관련단체는 민자당주최와 조직원이 집결하는 직접적인 이유 말고도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정권교체를 위한 공세로 전개하고 있다. 선거시기에 이르러 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교통, 교육, 농어촌 문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 지역감정의 고취와 '공약(空約)'의 제시

우리가 경제개혁 할 민자당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계각역(각 지역감정 부추기기) 작전이다.

미지역으로 민자당은 당 수뇌부의 지원유세를 통해 남북한의 시·도, 유엔가입 등 통일-국제 분야에서의 6공 업적을 부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안정의식 확보가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교통, 교육, 농어촌 문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 오 경 훈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 평등교육 외면한 6공의 교육정책

## 교육재정확보 요구로 시작된 교육대 개혁 투쟁

각 대학의 등록금 부정이 장기화될 전망을 보면서 전대협을 비롯한 각급 학생회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투쟁이 일어났다. 한편이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인정 3·24 총선공전에서 반국민적 요구로 정경화 시킨다는 전언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어 현 정권에 정치적 부담으로까지 작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도 92년 전교조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교육대개혁'을 설정해 현재 활발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3·24 총선을 계기로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교조에서는 교육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전교조, 한국교육연구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개혁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5월중을 목표로 시범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렇듯 '교육'의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 되는 요인은

의 문제점은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난의 부족을 교육개혁에서 시도하려는 것으로부터 대학을 교육가능 인력 양성소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과학과 외국어의 증진, 각종 코스의 우월한 배치 등으로 소수 영재교육을 실시하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6공화국은 교육의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보부분을 들 수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전입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확보부담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현정권은 지난 91년부터 교육세의 영구세화 및 그 확충을 발표,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부본으로 부각되는 국가재정은 여전히

교조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에 관한 개혁방안의 주요요소를 보면, 교육재정 규모를 GNP 5퍼센트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GNP 5퍼센트 확보라는 것은 교육부자의 소득과 납세를 반영하는 것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NP의 3.4%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6공화국은 사립학교법개악, 교수자임용등을 통해 교육의 긴장점들을 피하고 있다.

## 교육대개혁투쟁, 총선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

## 여론 환기용 개혁방안이 아닌 근본적 교육정책 수립되어야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6공교육정책의 문제점

지난 89년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 국민대중들 사이에 정부 독점적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회적 반작용으로 교육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와 함께 6공화국은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의 일대변화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여러가지 개혁정책들을 발표하였다.

6공화국이 들어 나타난 교육정책 변화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엘리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최근 들어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조기 영재교육의 실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채와 시대'에 맞는 인간 육성이라는 6공의 교육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제 개혁이다. 현재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제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제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제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회균등과 평등교육이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도 말살하고 있다. 둘째는 교육의 간접 통제 방식을 들 수 있다. 개악된 사립학교법이나 교수자임용제도를 통해 사립학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학의 인정제도는 인정제를 통해 직접통제로 구상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명분하에 교수제도를 이용하여 대학의 전 보적인 교육이념을 완전히적으로 분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세제로,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실시된 교육개혁의

하구성이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각 단위 학교의 초보적인 교육자치도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기 부여까지도 없어 단순한 일방적인 보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제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교육대개혁을 어떻게 이

를 추진하는 6공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경쟁의 심화, 교원기본권 약화, 교육자치의 허구화, 교육내용의 개인주의화, 교육정책 및 교육관행의 변화, 청소년 문제의 심화 등 총 6가지 문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

일적인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개혁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민간자원의 유치에 할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의 구조적 원인을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련된 무수한 법 개정 및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일방적인 여론환기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지 못했을 뿐더러 현행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할 수 있는 입시교육의 폐해는 여전히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 교육대개혁을 어떻게 이

를 추진하는 6공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경쟁의 심화, 교원기본권 약화, 교육자치의 허구화, 교육내용의 개인주의화, 교육정책 및 교육관행의 변화, 청소년 문제의 심화 등 총 6가지 문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

### 교육대개혁을 어떻게 이

를 추진하는 6공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경쟁의 심화, 교원기본권 약화, 교육자치의 허구화, 교육내용의 개인주의화, 교육정책 및 교육관행의 변화, 청소년 문제의 심화 등 총 6가지 문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

### 교육대개혁을 어떻게 이

를 추진하는 6공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경쟁의 심화, 교원기본권 약화, 교육자치의 허구화, 교육내용의 개인주의화, 교육정책 및 교육관행의 변화, 청소년 문제의 심화 등 총 6가지 문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

### 교육대개혁을 어떻게 이

를 추진하는 6공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경쟁의 심화, 교원기본권 약화, 교육자치의 허구화, 교육내용의 개인주의화, 교육정책 및 교육관행의 변화, 청소년 문제의 심화 등 총 6가지 문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

### 교육대개혁을 어떻게 이

를 추진하는 6공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경쟁의 심화, 교원기본권 약화, 교육자치의 허구화, 교육내용의 개인주의화, 교육정책 및 교육관행의 변화, 청소년 문제의 심화 등 총 6가지 문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

# 우리의 주권이 관청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부채자투표 신고 반송에 대하여

지난 3월9일~10일 양일간에 걸쳐 총학생회에서는 부채자투표 신고를 받아, 학우들의 신성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거결과 7백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가짜주 주소를 총학생회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구경북지역 관료들은 신고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판결:출타지 거소를 총학생회나 학과로 신고한 것은 "신고인이 신고한 곳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혁신과 도약의 큰걸음

제/26/대 승/리/하/는 총/학/생/회

그래도 우리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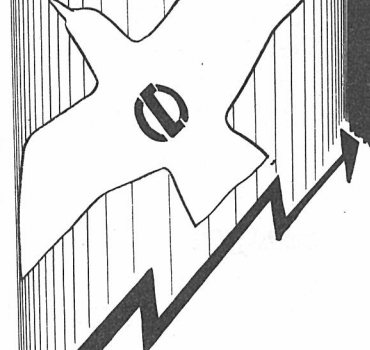
아무리 관료배들이 청년학생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기어코 참민주세상을 일구기 위해 투표에 참가할 것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부채자투표신고반송에 강력한 항의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귀향투표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귀향투표를 임대하여 학우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향해서서 투표하길 분들은 이동 총학생회(도서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셔서 접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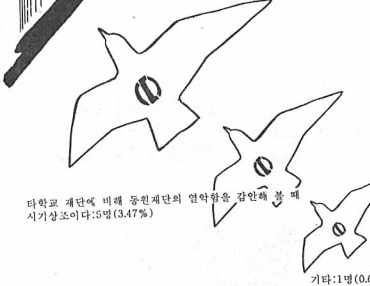
# 그림돌보기-외대인의 등록금투쟁 참여도 조사

92년 등록금에 주요관건으로 제기되는  
「재단전입금 확충」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학교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단전입금 확충이 시급하다: 1백19명 (82.63%)



재단전입금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20명 (13.86%)



타학교 재단에 비해 동원재단의 열악함을 감안해 볼 때  
시기상조이다: 5명 (3.47%)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미지 해결  
점을 찾기 못한채 1차등록금납부연  
기가 진행되고, 또 2차 납부기간  
이 다가오는데도 학생대표와 대  
당국대표가 함께 하는 등록금 대  
회의는 1차에 이어 2차회의도 길  
리고 말았다. 총학생회는 2차등록  
기간을 제1학기 1/4인인 3월26일  
의 전주인 23일(월)부터 27일(금)  
도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  
교측은 이를 거부하고 3월16일(월)  
부터 20일(금)로 정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대의의  
노력으로 2차등록을 강제하려는 학  
교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학생들  
에게 등록금을 총학생회의 구로로 납  
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  
정에서 본보는 등록금에 대한 의  
사를 조사해보고자 외대생 1백44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먼저 1차등록기간에 납부를 하  
는 것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2.5  
%가 등록금납부에 동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등록  
금으로 답한 응답자도 등록이 불  
가능한 신입생과 원외학생을 상  
당수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등록  
금에 참여하는 학생은 더 높은

## 설문조사 결과

질문1. 당신은 1차등록금납부기간에 등록을 하십니까?  
등록하였다: 54명 (37.50%)  
등록하지 않았다: 90명 (62.50%)  
질문2. 학교측의 18.18% 인상된 등록금 고지에 대해 학생측에서는 4.86%를 제시하였습니까? 학생측 4.86% 인상을 학생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측이 공개적이거나 타당하여 현실적인 합리적인 인상이라고 본다: 70명 (48.61%)  
4.86%인상도 부당하고 국고보조금과 재단전입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33명 (22.91%)  
실질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20명 (13.86%)  
기타: 15명 (10.41%)  
질문3. 92년 등록금에 주요 관건으로 제기되는 재단전입금 확충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타학교 재단에 비해 동원재단의 열악함을 감안해 볼 때 시기상조이다: 5명 (3.47%)  
학교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단전입금의 확충이 시급하다: 1백19명 (82.63%)  
재단전입금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20명 (13.86%)  
기타: 11명 (0.67%)  
질문4. 등록금내역의 눈금 계속 전입되고 총학생회는 2차 등록기간(16일~20일)을 23일~27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의 거부로 등록금을 총학생회에 납부할 것을 학우들에게 제안하였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제1과 기간 비공백 중)  
총학생회의 구로로 납부하겠다: 63명 (70%)  
학교측에 납부하겠다: 12명 (13.33%)  
무응답: 15명 (16.66%)  
질문5. 위 문항에서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주관식)  
설문조사 대상: 본보제 1백44명  
조사 장소: 일시: 서울 캠퍼스, 3월 14일(토)  
조사 방법: 설문조사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총학생회로 납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총학생회 구로로 납부하겠다: 63명 (70%)

에 비해 우리학교 재단인 동원재단  
의 경제능력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환을 유예하고 파악하지 못하  
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단전입금  
의 80%를 학교운영비로 전입  
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62.5  
%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관철되  
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며 불거진  
상환을 유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  
고 아직까지 4.86%의 학생내역이  
나 재단전입금에 대해 잘못한다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등록금에 주요 관건으로 제기  
되고 2차 등록금에 대한 질문에  
는 재단전입금 확충에 대한 질문에  
는 현재 학교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부당하  
고 재단전입금의 확충이 시급하  
다고 1백19명의 응답자가 지적  
했다. 5명의 응답자는 타학교 재단  
에 비해 우리학교 재단인 동원재단  
의 경제능력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환을 유예하고 파악하지 못하  
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단전입금  
의 80%를 학교운영비로 전입  
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62.5  
%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관철되  
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며 불거진  
상환을 유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  
고 아직까지 4.86%의 학생내역이  
나 재단전입금에 대해 잘못한다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웅대 50당 30락(?)



이웅대  
(서울대 서반아어과  
79학번 민족민주운동연  
구소연구원)

마치 언론과 선거운동원만이  
충전을 맞이하는 듯한 양상을 14  
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차에서 총선이 다가왔다. 2.12  
총선으로 많이 알려진 85년의 총  
선에서는 나는 모퉁이의 신인상  
원인을 받으면서 조피를 하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개인선  
지(1/3)가 현실이 되고  
있고 이 목표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수년간 진보세력의 의회진출을  
목표로 인간임을 쓴 민주당 또  
한 민주당 후보의 대거 진출이  
아니라 1석이라도 진출 그 자체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벌을 바  
탕으로 창당한 재벌당 국민당이  
몇몇 지역에서 의회의 바탕을 일  
으키고 있다고는 하나 민주당과  
가게와 의 관계가 분명한 국민  
당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대중에  
게는 회합과 바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전국연합 역시 전국연합  
후보를 냈고 의 지역에 내고, 후  
보를 통한 반민자당후보를 전  
국화하고 있다. 그러나 반민자당  
후보의 분과를 만들면 지의 분  
과(대통령)이 부패한 우리  
민중세력의 노골적 드러나지만,  
민중세력은 50당 30락이  
라는 50당을 써야 당선된다. 2.12  
총선으로 많이 알려진 85년의 총  
선에서는 나는 모퉁이의 신인상  
원인을 받으면서 조피를 하

## 허무적 냉소보다는 실천 속에서 전망을

고 유세장을 찾아갔던 경험과,  
88년 13대 총선에서는 발목을  
다쳐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에  
한 달여를 반민자당 총선후보에  
참여하여 상동구에서 3명의 민  
당 후보가 모두 낙선되는 결과를  
보았다.  
지난 몇년간 수없이 되새겨 온  
'92-93년 국회의원선거'의 첫번째  
를 우리는 14대 총선에서 맞이하  
게 되었다. 89년 공안통치의 시  
적에서 90년 3당합에 의한 어  
소아에서 기대어달라던 급조  
된 변화 등을 겪으며 민족민주세  
력은 온 이들을 시기하다 92-  
93년의 대결전을 회망으로 삼았  
다. 그러나 14대 총선을 얼마 앞  
둔 현재, 당락의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총선은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희망적이지 못  
한 생각을 갖게 한다. 대  
당선거를 앞둔 시기에서의 총선  
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과반수  
지배력을 가져나가는 우리 사회  
현실의 일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  
다. 같은 맥락에서 대항선 선거  
아르바이트하고 하고 사람을 가  
리지 않고 돈을 많이 주는데로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 거  
주 민주투쟁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 학원생이 이런  
나라는 유세가 아니라 선거가  
대중들의 집착을 통해서 전  
환 대중성을 획득한다. 그  
렇다면 이번의 총선 결과가 민  
당의 압도적 당선으로 귀결되  
더라도 우리는 귀중한 대중성 손  
에 잃지 않고 그렇지만 총선  
후에 대중성을 무기로 대중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석이 있어서는 전  
대법이나 전국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자리에서는 생략하  
기로 한다.)

## 다른 대학에선

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간교수법 제정논의의 이유로  
작용을 주장하는 규규정 2년전  
작성한 개정안 규규정을 비교해  
볼 때, 규규정에 의하면 규규정  
제안 활동은 주간교수의 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 주간교수  
제정에 의해 규규정의 제정  
수도 있다. 이점에서 개정안 규  
정에서는 학사비서의 모든 행정  
은 학생회장의 의사결정에 의  
해 이루어진다.  
교내학생회 학생회들은 당면한  
사태에 대해 '대학원' 본회의  
사망과 표현의 자유, 학생회  
가 인정할 수 없다 규규정

## 민족 자주 언론 외대학보사 제47기 수습모집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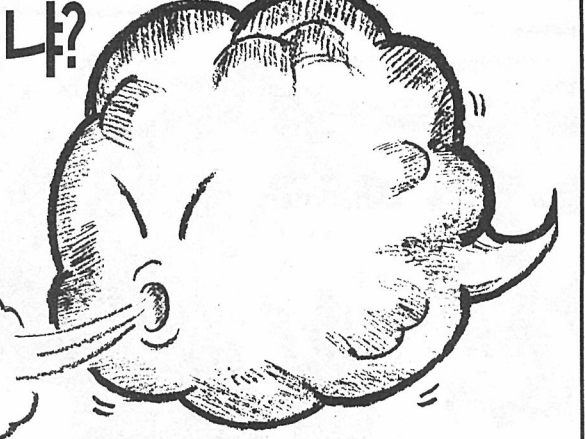
# 단단히 준비되었느냐?

태양과 구름이 한 나그네를 상대로  
협자랑 내기를 하였다.  
구름은 거센 바람을 일으켜  
역지로 나그네의 외투를 날려버리려 했고  
태양은 반짝 더운 기운으로  
나그네에게 계절을 속였다.

너는 이제 막 길을 나선다.  
시련과 유혹도 뒤따라 나선다.  
한치도 한 순간도 시련과 유혹의  
협자랑에  
이용될 수 있겠는가

어떤 외입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주로써  
길을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단히 준비되었느냐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너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외대학보 제47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 대 학 보





## 양캠프, 민주후보 유세지원 박차

서울, 도봉을구에서 8백여명 지원 가두 행진  
성남, 용성총련주최 총선승리 결의대회 가져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민주후보 선출을 위해 학생들이 유세지원에 나서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본교 서울-용인캠퍼스 학생들이 참여할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총연)과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은 전국연합에서 추천한 민주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유세지원에 나서, 14일(토) 서총연 소속 8백여명은 서울 삼양국민학교에서 열린 도봉을구 출마자 소준관(무소속)씨에 대한 유세지원행사를 펼쳤고, 용성총련 소속 2백여명은 성남국민학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출마자 이윤수(민주당)씨에 대한 유세지원행사를 가졌다.

14일 서총연 차원의 유세지원은 전두경총 5개중대 약 3백여명이 대대장을 에워싼 가운데 민주후보 소준관 씨에 대해서는 원호와 박수로써 지지해 보였다. 민자당 후보의 유세에는 동원된 안기와 귀박, 야유보내기 등을 펼쳐 세차한 유세가 중단되기도 했다.

유세 이후 이들 서총연 소속 8백여명은 소 후보의 선거사무실인 미아삼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민주후보가 당선돼야 함을 선언했다.

같은 날 용성총련 소속 2백여명의 학생들은 성남 신구내문에서 '공안선거 규탄 및 총선승리'를 위한 5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한미적으로 책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은 합의서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1993년 최대 학우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대학당이 제정된 약속위반의 댓가를 반드시 부징



이름은 유세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다. 우군은 "학생회가 제시한 4.86%인상안을 대학당의 인상안과 비교하다 보면 양자간의 엄청난 수치 차이로 인해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

“등록금 일방고지하는 대학당에 악소위반의 댓가를 부징으로 갈아야 합니다”

〈등록금 올리 위해 단식 들어간 독일과회장 우정명군을 만나다〉

는 학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타당하다 할 지라도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총학생회와 구교로 남았다'고 후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 학우들의 솔직한 심

## 양캠프, 복지시설 계약문제 마찰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캠퍼스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생협)은 학내복지시설인 서점, 복사실, 아문학관식당, 매점, 이발소 등에 대한 올해 계약제정을 놓고, 대학당국이 입주들과 단독계약한다는 입장에 맞서 총무처장 양승준(마인더)과 교수의 연방을 요청하는 등 공개입찰을 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평행히 맞서고 있다.

대생협의 입장은 대학당국이 90년도 2월23일 학내복지시설에 대한 대학당국입자, 학생회 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로 입의 아래 공개입찰을 통해 입주를 선택한다는 것에 동의의 한 바 있었으나 올해 학내 컴퓨터 매점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해 대학당국이 기존의 합의의를 무시하고 단독계약하라는 것은 엄청난 학원민주와 사학에 대한 위배라는 주장이다.

이런 계약문제에 대해 대생협총장 김경호(서학·이대리)는 "90년 합의대로 대학당국은 3월 9일 아래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지시설에 대해 입주와 대학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했던 컴퓨터 매점은 방학중 대생협, 대학당국, 입자 3인이 참가한 양자간 협상을 통해 신장한 입주를 대상으로 학생회관 조립식 가건물 식당에 어찌(16일)부터 개장하도록 했다.

대학당국과 서용캠퍼스 학생 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로 입의 아래 공개입찰을 통해 입주를 선택한다는 것에 동의의 한 바 있었으나 올해 학내 컴퓨터 매점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해 대학당국이 기존의 합의의를 무시하고 단독계약하라는 것은 엄청난 학원민주와 사학에 대한 위배라는 주장이다.

이런 계약문제에 대해 대생협총장 김경호(서학·이대리)는 "90년 합의대로 대학당국은 3월 9일 아래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복위, '도서관'설문 결과  
옥상휴게실 설치 77% 찬성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 도서관 설치위원회(이하 도서관 설치위)는 지난 9일(토) 도서관 설치위원회를 개최하고 14일(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서관 설치위원회를 개최한 도서관 설치위 위원들은 도서관 24시간 개방에 대해 29명(45.5%)이 찬성, 1명(9.09%)이 반대했다. 찬성 이유는 자유로운 문학활동기 조성

서울에서 본교생 4명6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4일(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서관 설치위원회를 개최한 도서관 설치위 위원들은 도서관 24시간 개방에 대해 29명(45.5%)이 찬성, 1명(9.09%)이 반대했다. 찬성 이유는 자유로운 문학활동기 조성

총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두루마리 남겨준을 통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정권 집합을 주장해 내려는 양캠퍼스 학생들의 등부 권력은 유교인 민주적 학생회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절대적 신뢰와 믿음으로 있을 때만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군은 "바람직한 새내기들과 함께 학산을 등반했는데 정상까지 오르면서 무척 힘이 들었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 학산을 내려다 볼때 느꼈던 그 뿌듯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끄럼과 도전과 마진까지의 투쟁이나 나옴이 함께 오를 때만이 정상에서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라며 말을 맺는다.

본교 언론협회(이하 언론)는 지난 13일(금) 서울-용인캠퍼스 교각 각 동쪽 공동취재대와 유주자의 출입구를 아야

대학당국은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복지시설에 대해 입주와 대학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당국과 서용캠퍼스 학생 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로 입의 아래 공개입찰을 통해 입주를 선택한다는 것에 동의의 한 바 있었으나 올해 학내 컴퓨터 매점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해 대학당국이 기존의 합의의를 무시하고 단독계약하라는 것은 엄청난 학원민주와 사학에 대한 위배라는 주장이다.

이런 계약문제에 대해 대생협총장 김경호(서학·이대리)는 "90년 합의대로 대학당국은 3월 9일 아래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당국은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용인, 학교 단독계약에 '대생협'공개입찰 요구

서울, 학생 수익사업 계약권 이양 주장

## 용인, '동유럽학생회 연합'결성 단과대 분리 작업 본격화

용인캠퍼스 동유럽 5개 언어 학회(폴란드, 체코, 유고, 헝가리, 루마니아)가 학과 학생회 연합체인 '동유럽 5개국 학생회 연합'(이하 동유럽 연합)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과대 분리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1월말부터 집행부를 꾸린 학생회 연합은 용인캠퍼스 92학년도 준비학교 기간을 통해 단과대학분리에 대한 신입생 대상의 교양 및 석사학위 학 행사 중 독자적인 행사를 치를 등, 단과대학분리작업을 이행해 왔다. 각학과 학생회를 통해 5개학과 학생회를 부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창설된 학생회 연합은 오는 17일(토) 단독 입후보한 정용준(무마)이(이)다)에 대해 동구교에서 학생회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후 18일(수)에는 처음으로 동구교에 학생회를 개회하고

19일(목) 있을 정기 학생총회에 단과대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과대학분리 작업과 함께 대학당국과의 협상문제와 리사이아에 대한 동구교에 포함문제 등 핵심사안들이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단과대학분리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인총학, 직영버스 증차 요구 대학당국과의 '교통운영소위'계속 난항

용인캠퍼스 통학에 따른 교통문제와 관련 학생회가 제안한 직영버스 증차를 통해 학내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목) 동생이(이)다)에 대해 동구교에서 학생회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후 18일(수)에는 처음으로 동구교에 학생회를 개회하고

19일(목) 있을 정기 학생총회에 단과대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과대학분리 작업과 함께 대학당국과의 협상문제와 리사이아에 대한 동구교에 포함문제 등 핵심사안들이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단과대학분리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과의 협상 부분은 오는 4월초에 있을 각 대학 단과대별 개성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에 이어 대학당국이 이를 허가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예산확정,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마련 등 제반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기중 학생회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사이아에 포함문제는 앞으로 대학당국과의 논의 진행 속에서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공 고

1992년도 제1학기 재학생 추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1992년 3월 16일(월)부터 1992년 3월 20일(금)까지
2. 등록장소: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재민은행 전국 각 지점
3. 등록금액: 등록금 고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등록금 차액을 은행에 납부함
5. 등록금 영수증은 개발행하지 않으니 소중히 보관함

※후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구내, 4043~4) 및 용인캠퍼스 총무과(용인 구내, 4013)에 문의바람

1992년 3월 일

재무처장

## 당 부 의 글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추가등록기간을 3월 16일에 20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직 등록을 못한 학생들은 위의 기간내에 이를 마침으로써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미등록제적)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별도제외를 만들어 따로이 등록금을 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이며, 학생들이 호응하는 경우, 위에서 지적한 학적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인상된 상태에서도 수도권 종합대학교 가운데 최하위그룹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지성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면학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1992년 3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과랑새

윤인켄퍼스 동아리 &lt;사립문학반&gt;

하늘을 가르며 쭉쭉 뻗는 너의 양철 주먹에선  
악카세아 양기가 나는구나! 친구야빛은 전철을 말하고자 푸른 수의의 땀으로 서고  
빛빛을 경찰서 등보판의 낯선 수배전단애 남았선  
그날 이후여름이 가는 학생회관 유적지에서  
답답한 가슴을 우린 도로로 불렀지  
석양이 깃들 컴컴스런  
푸른 토레타만 붙어있지

지리했던 여름 끝날

도서관에서, 해방광장으로  
강의실에서, 노천극장으로 향하는 여객가  
악작을 허술한 전희장에서  
'여름이' '무엇하고' '다부진 몸매'의 인상착의로 요약  
될 친구야! 너를 만났구나6·8공식 파문아란 화려한 가명 아래  
옛살만을 너의 넓은 얼굴에선 흙냄새가 나는구나

친구야!

네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원하게 살아올 때  
우린 달빛에도 쫓겨 다녔구나  
미안하다 친구야느슨해진 모든 우리에게  
세워진 박카스 한병을 건네주며 가는  
친구야 너는 진정한 파랑새구나오랜 가뭄이 지쳐버린 여름 끝날  
다시 일어서는 합성을 노래하는  
너의 특 볼거린 눈에서 바다가 보이는구나! 친구야6·3부정 이후 우리의 학원은 참으  
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학원안정화대책'을 앞세운 갖가지  
아이디어는 탄압이 시작되었고, 폐물  
로 매도되었던 우리들의 친구들은 지  
금도 창살안에서, 또 그 어딘가에서  
우리를 걸으며 돌아와 그 날을 열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용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봅시  
다.  
학원의 주주는 바로 외대인 여러분  
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찾을 수 있  
으며,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들의 '파  
랑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정 곳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

## 수필

대학 입학 후 세 번째로 맞  
이하게 된 봄. 사방에 신입생  
을 위한 갖가지 장막이 동아리  
소개를 담은 벽보가 의젓한 모습  
으로 자리를 갖춘 집 주변  
화실의 봄은 봄인가 보다.  
그 연경가. 입을 못지않은  
빛 발 달랑 쟁거 가지고 상경  
한 일이 있기에 같은 날 벌써  
지나간 일이 되어 뒤안길의 주  
역으로 간직됨을 생각하면 그  
저 시간의 율행담에 빙매할  
바람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누구에게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세이런 미네르바를 가족들을 할  
곳한 꽃내음. 그리고 도서  
실, 광방, 노천극장 및 사회  
곳에서 전철을 타며 열심  
생활하는 외대인의 자랑스런  
모습에 벅찬 가슴 억누를 것  
없었다. 그러나 외대와 이토록  
결연해있는 데는 필연적인(?)  
고분과 고개가 뒤따랐었다. 과  
연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것  
인지, 조심스럽게 내디딘 발걸  
음이 행여 실족하지는 않을지  
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을  
있던 시간들. 2학년 말까지도  
이런저런 고민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산내남에서 해 주  
신 답을.  
'대학은 구하는 자들의 것이  
며, 고민한 만큼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나 역시 삼수년 제수니사회라는 준사회를 이루며, 가  
급의 데이트 불행화음을 내다  
기도 끝 똥바퀴처럼 원만하  
게 돌아가는 우리대 신체의  
삶. 비록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활이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인생의 황금시기는 이렇게 마  
냥 흘러가며 훗날 돌아보면  
그저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만  
느껴지는 추억을 만들게 된다.  
필써부터 외대에 대한 진한  
향수와 그라움을 느낀다고 하  
면, 혹자는 나를 두고 정신이  
상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러나 누가 뭐라해도 외대에  
대한 것이 자비할 건, 비단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저하듯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이다. 외대라는 글자가 신  
분자상에 보이기만 해도 먼저  
눈이 가게 되고, 6·3부정으로세 번째 봄이 일개워 준  
외·대·사·랑번째로 맞이한 봄 덕분에, 이  
제 도서관을 가든 학생식당을  
가든 그렇게 많은 학교들과  
배회하던 생소한 사람보다  
는 낯익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비록 겨울이 어느  
가 누르지는 지새호 보르나 흰  
곳 스쳐지나갈 망정 단면이 있  
다는 것이 반갑고, 아울러 겨  
울 방학동안 잘 지내고 새로온  
기분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나를  
보면 외대는 이제 나와 절친한  
친구임에 틀림없다.  
처음 외대를 찾았을 때는  
너무나 애초하고 삭막한 모습  
에 적잖이 실망도 했지만, 이  
젠 오히려 강의실을 찾기에 너  
무나도 가까운 거리와 곧 4월하는 문제와 과, 혹은 대학후  
계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우선 많  
이 고민하고 어떤 예상치 못했  
던 일에 봉착할 경우 최선을  
다하려는 것과 최선을 없으면  
차선책을 강구하여 나름의 문  
제를 해결하라는 점이다.  
이것은 야고코, 저것은 야고코  
대학 사회의 이방인으로 그저  
아침이까 동고하고 저녁이까  
하교하는 식의 부유적인 삶  
은 훗날 감당할 더 어려운 시  
련으로 이끌 뿐이다. 무슨 일  
을 하든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성이 다른 사람이  
모여 한 학년을 이루고, 그 학  
년이 작게는 과 크게는 대학인해 구속되었거나 아직도 수  
배중인 학우들을 누구보다 저  
정하고 가슴애틀할 수 있는 것  
은 외대인이라는 하나의 정  
제 의식 때문이라.  
봄하면 으레 첫 떠올리게 되  
는 희망, 새로움이라는 파상하  
인 의미에서, 오늘날은 조용하  
나와되고 깊은 정이라는 나란  
의 의미를 갖고 있다. 3학년이  
라는 위치에서 새롭게 새로  
나난의 3월.  
'그대' 봄을 전로 멀리 있  
었던 게 아니냐. 생활의 기쁨  
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외대 자체가 바로 봄이었어!.전 병 우  
(동양·이관어3)

학우들 가슴에도 못이 박힙니다

—지난 16일(월) 이문켄퍼스 학생 70여명은 대학  
당국에 3차 등금금 대학회의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  
구하며 재무처를 제해했다.  
(강인국 본보 편집장)문화  
응답

여자도 이제...

—박은희 지음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최  
근들어 점점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결과  
물의 하나로 연애철학, 성학,  
결혼론, 부부관계 등의 여성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각의 문제점을 풍토로 위  
어 이야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덧붙이고 있어서, 마치 문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것이 생각해 보게 한다.  
(새날출판 24천원)푸르른 들꽃향기 교정  
에 가득한데—이상인 외 지음  
도시락을 싸고서 못한 아이  
들과/장한 한 학, 양한 한 학  
대/변변히 캐어보지 못한 아이  
들의/없는 꿈의 머릿말로 눈  
이 내리고/산바를 학교/중  
세)  
교단사인들의 모인된 들꽃  
인 4인의 시집이다. 농촌이  
들과 교육문제,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농촌문제 등이  
전반한 필치로 형상화되고 있  
다.

(인문출판 22천5백원)

우리 문화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김성수 엮음  
리얼리즘의 발생과 그 역사,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리얼리  
즘의 역사를 재조망해 실용한  
책이다.  
우선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  
회주의 리얼리즘의 발생과 발  
전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  
했는지 살펴보고 있  
다. 리얼리즘 논쟁의 여파와  
오늘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  
을 것이다.  
(사계절출판 21천7천원)

## 문화 경제학 강의

—김아빈 지음  
—박희규 옮김  
경제학 개념에 대해 문화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가치나 생산 및 분배에 관련  
된 7가지 이론에 대해 각기 다  
른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소개  
한다. 스미스, 멜라스에서 리  
카도,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종합  
으로써 경제학 개념을 쉽게 이  
해할 수 있게 한다.  
(오월출판 23천3백원)

## 세상의 문 앞에서

—이태백 지음  
80년대 초 '학원사건'으로 8  
년간의 징역을 살고 나와, 현  
재 주간 전국노동자신문 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자의  
속증 서한집이다.  
민주에 대한 염원을 간직한  
계 80년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곳한 삶의 내면을 느끼게 한  
다.

(인문출판 25천원)

## 20세의 원정 상·하

—에스코 지음  
—박희규 옮김  
6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 눈  
을 뜨기 시작하여 그 속에서  
강동호로 화살핀 한 일본 여  
대의 일기를 모아 엮은 책이  
다.전국 20세의 나이에 저자는  
는 죽음을 택했지만 하루하루  
를 치열하게 살다가 그녀의 모  
습에서 오는 무의의 모습을 되  
돌아보고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70년대 전후의 일본  
학생운동사도 아울러 접하게  
된다.

(국립문학사립 24천원)

## 반경 제2회 정기사건전

—반경 주최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  
사건전과 '반경'은 16일(월)부  
터 18일(수)까지 명동 유네스  
코비관 10층 전시실에서 두번  
제 정기 사건전을 개최한다.  
대학신문사건기자들이 치열  
한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담  
아 낸 생생한 기록들이 35점의 보  
도사진으로 선보이게 될 것  
이다.잘 다듬어진 글을  
원하신 않습니다날씨가 푸근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꽃샘추위로 몸이  
울츠르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정에도  
봄이 가득 차게 될 날이 그리 멀지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봄을 맞으며 외대학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  
고 계십니까? 가슴 속에 간직한 아름다움 이야기들을  
외대학우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렵니까?  
잘 다듬어진 화려한 문장의 글을 원하시는 않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고뇌가 있고, 진실이 담겨  
져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진지한 삶이 담긴 여러분  
들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시·수필·공예·일기문·서간문·영화·연극·기타·공  
예(각 10~12매), 단편소설(40매 이내) 등 어떠한 형  
식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문 학생회관 2층 외대학  
우 문화부로 찾아 오십시오. 반갑게 맞아 드릴것습니  
다.  
(문화부)시사저널과의  
대화로 비전을 정립하십시오젊고 순수하기에 현실의  
부조리에 분노합니다.  
환경오염문제와 통일정책을  
열린 목소리로 토론합니다.  
외세의 개입을 경계하며 우리 본연의 힘과 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깨우기에 정열을 쏟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그저 즉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갖기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한국지성의 자존심 시사저널과의 대화로 올바른 비전을  
정립하십시오. 시사저널은 젊은 지성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들어야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정기구독신청 : (02)733-3330

오늘 우리의  
TV문화를 생각합니다TV는 있어 TV문화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혼화되 미디어문화가 없습니다. 연예오락은 있어  
건전한 비판적 시각은 찾아보지 않습니다.  
대중문화관객이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공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보성, 오락성, 비판성의 세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건강한 대중문화를 제시하는 TV저널—  
TV저널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 모두의 대중문화를 반성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주간 TV정보지입니다. 지금, TV저널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의 전진을 찾아나서십시오.

TV저널 정기구독신청 : (02)720-8111

## [주] 국제언론문화사 (IMI)